



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http://www.emerics.org/	「이슈&트렌드」
	UAE,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법 및 비자 관련 법 개정 작성 손성현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)
2018. 12. 06. 아프리카-중동	

□ UAE 정부는 외국인의 지분 투자 한도를 100%까지 허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투자법과 장기 거주비자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음.

- 2018년 10월 30일 UAE 경제부는 기존에 경제특구 외의 지역에서 49%로 제한된 외국인 보유 지분 한도를 산업 부문에 따라 최대 100%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투자법을 발표하였음.
- UAE 정부는 투자법에 외국인 투자 금지, 의회 승인 및 정부 추천 시 투자 가능, 외국인 100% 투자 허용 등 3개의 투자 가능 업종을 구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음.
- 11월 24일 UAE 의회는 고액 투자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장기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음.
- UAE 정부는 280만 달러 이상을 현지에 투자한 외국인, 의료, 과학, 기술, 문화·예술 등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,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인 학생 등에 대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족과 함께 UAE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비자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음.¹⁾
- UAE 정부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줄이되 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유입은 장려하겠다는 입장임.

□ UAE는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투자법 개정과 장기 거주비자 도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음.²⁾

- UAE는 그동안 항만 및 공항 개발, 각종 경제특구 조성 등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에 힘써왔으며, 그 결과 역내 물류 및 교역 중심지가 되었음.
- UAE 정부는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 우수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³⁾
- UAE는 2018년 사업환경지수(Doing Business Index)에서 세계 21위를 차지하였으나 창업, 자금조달, 파산 절차 등 제도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함.
- UAE는 파산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, PPP(Public-Private Partnership) 법을 정비

1) 기존의 UAE 노동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했으며, 만료될 경우 현지인 스폰서의 동의를 획득해야 갱신할 수 있었음.

2) 2017년 기준 UAE의 FDI 유입은 103.5억 달러(중동 지역의 40.6%), 저량(stock)은 1,299억 달러(중동 지역의 17.0%)를 기록하였음.

3) 석유 부문은 UAE 정부 재정 수입의 34.5%, GDP의 22.3%로 UAE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국제유가에 따른 경기변동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석유 부문 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다각화가 필요함.

하는 등 투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.

- UAE 진출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스폰서십 제도가 지목되고 있으며, 외국기업의 지분을 최대 49%로 제한한 상태에서 51%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현지인 스폰서가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이에 대한 외국기업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.
 - 스폰서십은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100% 현지인 지분으로 구성된 기업 혹은 개인을 스폰서로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제도로, 대정부 업무, 각종 계약 및 서류 발급, 고용, 이직, 거주비자 발급 시 스폰서의 동의(서명)가 필요함.
- UAE 정부는 2019년 1/4분기에 투자법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국인 단독 투자의 실질적인 허용 가능성 및 비자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- UAE 경제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업종별 외국인 투자 지분 보유 범위 및 세부 규정 마련 등의 업무를 2019년 1/4분기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음.
 - UAE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법안을 개정했다고 알려지면서 외국인 단독 투자를 법으로 허용하되 실제 단독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.
 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투자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100%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으나 이유 없이 투자 승인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최소 자본금 및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외국인 단독 투자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.
 - UAE 는 개정된 투자법에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요인 중 하나인 스폰서 제도를 유지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기대보다 투자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 -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 투자기업에 보건 및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국민 의무 고용 규정도 포함하였음. **EMERiCs**

참고자료

UAE Ministry of Economy, Gulfnews.com, Oxford Analytica, EIU 등